

2013. 11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2013년 11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대전문화방송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국	
2013.11.29	대전MBC 대회의실	7/10	6	

- 시청자위원 불참자 명단: 김명수, 김경숙, 김형주 위원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 김창옥 사장, 김미리 경영기술국장, 김종찬 편성제작국장, 서주석 보도국장, 차태헌 방송기술센터장, 오승용 경영심의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9	6	-	1	16	-	16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4	10	2	16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6건	6 건	10월
교양	'토크앤 조이' 진행자 호흡 더 매끄럽게	'토크 앤조이' 진행자 호흡 잘 이루어지고 있음	10월
교양	'건강플러스' 건강관련 프로그램이므로 MC의 언어 선택 유의	'건강플러스' MC 언어선정 교육 실시 프로그램에 적절한 언어 사용	10월
기타	특집 다큐멘터리 모바일로 다시보기 할 수 있도록 게재 요망	특집 다큐멘터리 모바일에 탑재. 시청 가능토록 조치함.	10월
보도	뉴스 자막 오, 탈자 유의	뉴스 자막 오, 탈자 스크린 작업 철저히 강화해 시청자들에게 제공	10월
보도	아침 뉴스 날씨 지도 밋밋	CG 작업 강화하여 날씨지도 입체적으로 제작 진행	10월
기타	특집 다큐멘터리 예고 PR 홈페이지에 게재 요망	특집 다큐멘터리 예고 PR 홈페이지에 게재	10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다.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해당사항 없음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교양	<p>시사플러스(11월 19일) 「끝나지 않은 상처, 민간인 학살 / 발전소 온배수 바다로 쏟아진 갈등」 편이 방송되었다.</p> <p>이번 시사플러스는 민간인 학살을 재조명하면서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였다. 다만, 이러한 학살이 발생되게 된 계기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는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이 남았다. 또한 단순히 유해발굴을 해야 하는 것과 예산지원, 국가 및 지자체의 미온적인 반응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다른 국가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비교분석을 통해 설명을 해준다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끝부분에는 사회자의 간단한 정리멘트가 프로그램의 초반에 제시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다음으로 이어진 보령 화력발전소의 문제를 고발하고 있었는데, 주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주변 전문가들을 분석을 제시하여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다음으로 타당한 자료 조사를 통해 지자체의 대응을 꼬집고 있는 부분이 특히 인상 깊었으며, 국내의 다른 사례인 영광발전소의 사례를 분석을 통해 이해도를 높여주었다. 또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내레이션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역시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향후 내레이션을 적극 활용하고, 다른 사례와의 비교분석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오덕성).</p>	<p>‘시사플러스’는 두 개의 아이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짧은 아이템은 지역의 핫이슈를 신속하게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긴 아이템은 보다 장기적인 취재로 문제점을 고발, 분석 그리고 대안 제시까지 담고 있다. 그럼으로 짧은 아이템은 현실적인 제반여건으로 대안제시까지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지역의 올바른 의제설정,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사회 비리에 대한 고발에 제작진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 각종 대외수상을 이루었다. 지적하신 대로 내레이션을 적극 활용하고 비교분석을 더욱 강화하여 올곧은 시사프로그램으로 나가겠다.</p>	편성 수용
교양	<p>TV 특강 「내 삶의 행복을 소통으로 디자인 하라」 편(11월 19일)이 방영되었다.</p> <p>본 편에서는 소통을 통하여 행복을 찾아가기 위한 방법에 대해 개그맨 출신 표영호 강사님과 이야기 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p> <p>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우리나라 행복에 관한 연구 결과를 통하여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시작하여 신뢰감을 줌과 동시에 시청자의 주의를 이끌 수 있었다. 또한 방청객과의 소통을 중요시한 강사의 태도로</p>	<p>이 프로그램은 지역사 공동제작 프로그램이다. 시청각 자료는 보는 사람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자료이기에 계속 제작진들로 하여금 주의를 환기시키겠다.</p>	편성 의견참고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p>인하여 강의의 분위기는 즐겁게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사례 제시를 해주어 방송이 끝날 때 까지 흥미롭게 시청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강의를 끝나고 사회자와 강의자의 대화를 통해 강의 내용을 요약하는 시간을 통해 시청자의 이해도를 높여 줄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강의에 사용되는 시각 자료가 시청자들에게는 적절하게 보이지 않아 아쉬움이 남았다. 이후에는 시청자들도 선명한 자료를 강의와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주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강사님의 재치있는 말씀씨로 강의를 진행해 재미도 있고 교훈도 있는 편안하고 유익한 시간이었다(오덕성).</p>		
교양	<p>11월 9일 '전국이 보인다'에서는 가을에 어울리는 탕 요리와 단풍이 아름다운 괴산 지역의 명소, 순천만의 갈대밭 길과 갈대를 이용한 음식 등을 소개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여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현대인들에게 '전국이 보인다'는 꼭 필요한 정보제공 프로그램의 역할을 하고 있다.</p> <p>다양한 시각 자료와 영상을 통해 지역 맛집과 명소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내용적으로 충실한 시간이었다. 뿐만 아니라 방송 형식에서도, 지역민과의 스스럼 없는 인터뷰와 소통을 통해 정보를 제공해주어 생생한 삶의 현장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인터뷰를 하는데 있어서 지역민들 역시 어색함 없이 자연스럽게 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시청자들 역시 편안하게 방송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지역 사투리를 구사하는 리포터가 진행을 하는 부분에서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준어 나레이션을 겹쳐서 편집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는 리포터의 말도 잘 들리지 않고 나레이션에도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 세세한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어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오덕성).</p>	<p>'전국이 보인다' 는 지역 18개사의 공동, 교환 프로그램이다. 그러기에 타 지역의 다양한 정보와 볼거리, 먹거리 그리고 삶의 현장을 시청자들에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각사의 제작형태, 촬영기법 등이 달라 통일감이 없는 단점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지적하신 리포터와 나레이션이 겹치는 부분은 전체 회의 때 문제를 제기하여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p>	편성 의견참고
보도	<p>안희정 도지사의 출판기념회 현장을 뉴스로 내보냈다. 뉴스의 주인공은 책을 출간한 안희정 도지사일 것이다. 안희정 지사가 그리</p>	<p>출판기념회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군들이 세과시나 움직이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현</p>	보도 의견참고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p>는 한국정치의 미래라든가, 앞으로의 꿈이라든가 안희정 지사의 생각을 담는 것이 뉴스기사 처리의 흐름일텐데 출판기념식장을 방문한 정치인들을 조명하고 있었다. 주객이 전도된 기분이다(김영광).</p>	<p>실도 고려했다.</p>	
<p>보도</p>	<p>세종시 정부청사 옥상정원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한다고 했다가 접근불가로 결정되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대전에서 취재하여 전국으로 방송을 하였는데 곧 이어서 로컬 뉴스에서 이를 반복하여 송출하였다. 동일한 기자의 동일한 내용의 뉴스를 반복하여 내 보내는 것을 지양하기를 바란다(김영광).</p>	<p>서울과 로컬 뉴스 편성을 고려해 조치하겠다.</p>	<p>보도 의견참고</p>
<p>교양</p>	<p>창사특집 다큐멘터리 '황해'를 감명 깊게 시청하였다. 로컬의 제작능력이 서울에 결코 뒤지지 않는 역작이었다. 환경의 중요성을 화면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제작진의 노고에 찬사를 보낸다. 앞으로도 창사기획 다큐멘터리는 불 만하게 열심히 만들어주길 바란다(김영광).</p>	<p>칭찬에 감사하다. 창사특집 다큐멘터리 '황해'는 1년의 시간을 투자한 작품이었다. 황해의 철새를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고자 하였고, 더불어 살고 있는 지역민과 생존의 방법을 모색한 프로그램이다. 앞으로도 좋은 다큐멘터리를 기획하여 시청자의 기대에 부응하겠다.</p>	<p>편성 수용</p>
<p>교양</p>	<p>토크앤 조이(11/16, 11/23)에서 아침편지 문화재단 이사장인 고도원씨를 1, 2부로 방송하였다. 충주에 명상센터를 세웠는데 MC가 직접 현장으로 달려가 현장인터뷰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개인적으로는 고도원씨를 단회물이 아닌 2부작으로까지 해서 소개를 해야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김영광).</p>	<p>하루 4백만의 독자에게 편지를 띄우는 고도원씨는 토크앤 조이에서 심혈을 기울여 섭외한 인물이었다. 파란만장한 인생사를 맛깔스럽게 펼쳐놓는 시청자들이 만족할만한 탁월한 이야기꾼이기에 부득이 2부작으로 편성하였다.</p>	<p>편성 반론</p>
<p>보도</p>	<p>대전MBC 프로그램과 사업 내용이 지하철에서 홍보 동영상으로 소개되고 있다. 화면의 일부에서 퇴직한 사원의 얼굴이 등장한다. 화면을 최근의 것으로 재제작하기를 바란다(김영광). *보도관련 영상을 언급</p>	<p>창사 50주년 뉴스 PR로 대체 예정이다.</p>	<p>보도 의견참고</p>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교양	<p>연인매립과 해양오염으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황해의 현재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취재를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 화면구성, 사운드의 웅장함, 촬영기법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이 세련되게 잘 만든 프로그램으로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 의미 있게 시청하였다. 학생들에게도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판단되어 이 프로그램이 학교 교육에도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도가 궁금하다(유덕순).</p>	<p>다큐멘터리 '황해'는 한번의 방송으로 그치기에는 아쉬운 프로그램이다. 다른 지역사, 케이블을 통해 방송, 유통을 꾀할 것이며 표현하신 대로 시, 도 교육청과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교육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다.</p>	<p>편성 수용</p>
보도	<p>지역뉴스를 보면 지극히 평화롭다. 특별한 분쟁이 있는 것 같지 않고 뜨거운 논쟁도 없어 보인다. 지역뉴스가 보통 13분에서 15분 정도 처리되고 있고 아이템도 적지 않게 방송을 내보낸다. 지역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아이템들이 대체로 소프트하다. 기획물로 시리즈화 하여 보도된 것 또한 내용이 약하다. 시의성 있는 소재와 임팩트 있는 메시지 강한 소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논쟁이 있는 아이템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이 지역의 이슈를 발로 뛰어 찾아야 한다. 후속 보도는 최초 뉴스보다 심화되어 입체화된 뉴스로 진전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단절감을 가질 때가 있다(송인덕).</p>	<p>11월에만 수리과학연구소 혈세 낭비 단독취재, 감의 횡포(협력업체 자살), 구멍뚫린 열차안전 단독취재, 도안 크린넷 갈등 단독취재, 세종시 도로 집중취재,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의 중국산 취급, 동양그룹 금감원 관리 부실 논란, 자전거 안전 부실 기획취재, 소방관 실태 집중취재, 선거구 조정 갈등 기획보도, 청양 외 국민마을 비리 단독취재, 공무원 불법도박장 현장취재,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 논란 기획취재, 풍년에 우는 농민 현장취재, 초등생이 교사 폭행 은폐 단독취재,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쇼핑 단독, 잡입 특종 취재, 약사회 자정결의 후속 보도, 전통시장 활성화 기획취재, 수능이후 인터넷 강의 피해 봇물 단독취재, 제2의 밀양, 서해 송전탑 갈등 폭발 연속 취재, 타슈 예산 대폭 삭감과 논란 기획취재, 지역 병원 전공의 부족 심화 기획취재를 했다. 뉴스를 갈등 프레임이 아닌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려 하고 있다.</p>	<p>보도 반론</p>
보도	<p>최근 입시철을 맞아 대학교 입학과 관련된 기획보도를 하였다. 전공 선택과 관련되어 1.취업, 2.실무형 인재양성, 3.이색학과 등의</p>	<p>차별화된 시각을 고민해 보겠다.</p>	<p>보도 의견참고</p>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p>순으로 뉴스를 내보냈는데 이런 기획뉴스는 한 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아야 한다. 방송에 소개된 이색학과 등은 교육적으로 볼 때 제일 골치 아프기도 하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학과의 취업률이 높다고 해서 예전에 상당히 인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대학학과를 바라보는 시선도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교육과 관련 뉴스제작시 대학과 학부모, 교육당국이 같이 고민하고 연구할 수 있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송인덕).</p>		
<p>보도</p>	<p>문화부, 언론진흥재단과 함께 지역신문 구독에 대한 서베이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방송에도 연관이 있는 내용이 있어 소개를 하고자한다. 지역신문을 구독하지 않는 이유 중에 압도적으로 지적한 것이 지역신문에서 지역경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는 점이다. 방송에서 지역민을 위한 지역경제를 다양하게 취재해 방송을 하기를 바란다. 대전 세종충남 뉴스에 경제문제를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집중취재 혹은 기획취재물이 필요하다고 본다 (송인덕).</p>	<p>지역경제 분야 취재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p>	<p>보도 의견참고</p>
<p>보도</p>	<p>시사광장(11월 24일)에서 고려인삼 종주지인 금산인삼의 위기에 대해 토론을 가졌다. 전국 인삼 유통량의 70%를 차지하지만 저가 중국인삼, 노동력 저하, 경작지 고갈 등의 이유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지적하고 있다. 대형유통업체가 양질의 인삼제품을 저가로 공급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관한 언급과 대응논리가 취약해 아쉬움이 남는다 (한찬희).</p>	<p>문제제기 뿐만 아니라 대안까지도 고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p>	<p>보도 의견참고</p>
<p>보도</p>	<p>시사광장(11월 17일)에서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가졌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논란을 짚어보고 주민갈등 해결과 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취지로 토론을 가졌지만 제가 보기에는 준비되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판단된다. MC가 사전에 충분</p>	<p>토론의 깊이와 경쟁력 강화방안을 고민하겠다.</p>	<p>보도 의견참고</p>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한 지식을 갖지 못하고 토론에 임하다보니 패널에게 이야기 전개와 내용을 다 떠맡기는 식으로 진행된 느낌이다(장동환).		
보도	‘위기의 지방대학 나아갈 길은?(11월 10일)’이란 주제로 시사광장에서 지방대학의 앞으로 헤쳐나갈 과제를 짚어보았다. 출연 패널이 대학교 부총장, 기획처장 등 정부의 정책에 대해 소신발언을 하기 어려운 보직교수들로 이루어져 토론의 맛을 제대로 못살렸다고 본다. 이런 주제의 토론회는 정부에 할 말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담을 수 있는 기개 있고 의식있는 패널을 동시 섭외하여 뜨거운 논쟁의 장을 펼치면 시청자들의 공감폭도 더욱 높힐 수 있으리라고 본다(장동환).	패널 섭외를 보다 신경쓰겠다.	보도 의견참고
기타	웹 모바일 서비스가 많이 개선되었다. 다시보기 프로그램에서 재생이 안되는 프로그램이 있다. 시정조치 바란다(박희원).	다시보기 프로그램에서 폴더가 중복 생성되는 오류가 발생되었다. 수정조치 하여 다시보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된다.	경영 (전산) 수용